

[정보·과학]

헬로 마이로봇·DMB 개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미래 생활상이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첨단 기술들이 담겨 있다.

첨단 기술은 ▲21세기 통신 유도파아 ▲콘텐츠 서비스 혁명 ▲헬로 마이로봇 ▲차세대 에너지 개발 ▲신기한 나노 세상 ▲든든한 과학 기술과 국방 등 모두 10개 테마로 분류됐다.

◇내 손안의 TV, 지상파 DMB 시스템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방송연구단의 이수인 박사팀은 2002년에 연구를 시작,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인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스템 기술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연구결과는 현재 유럽, 아시아, 미국 지역 등에서 시험방송 및 상업용 방송에 적용됐고 독일 월드컵을 계기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헬로 마이로봇=원자로 속을 탐지하는 무인 수중 로봇을 비롯, 컴퓨터 두뇌를 가진 똑똑한 휴머노이드 로봇, 6천m급 심해 바닷속을 탐사하는 로봇 잠수정과 컴퓨터 두뇌를 사용하는 인간형 로봇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외 떠서 달리는 꿈의 열차, 레이다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스텝스 기술 등 특히 등을 하고 사업화가 진행중인 21세기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 웹사이트 1억개 돌파

전세계에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의 수가 1억개를 넘어서 있다고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업체 네트크래프트가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달에 350만개의 웹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져 이날 현재 웹사이트 수는 1억143만5천253개로 나타났다며 지난 2004년 5월 5천만개를 기록했던 웹사이트 수가 2년6개월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네트크래프트의 집계에 따르면 월들이 늘어난 웹사이트 수는 2천740만개로 지난 한해동안의 증가량 1천700만개를 이미 뛰어넘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중국, 한국에서의 웹사이트 증가가 두드러졌다.

네트크래프트는 블로그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웹사이트 제작이 점점 쉬워지면서 최근 2년동안 웹사이트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귀차니스트'를 위한 '컴퓨터 원격 관리' 인기

'PC 장애' 치료 온라인으로 '척척' 집에서 회사PC 접속해 업무 '뚝딱'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바이러스 검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원 정모(30·광주시 남구 구동)씨는 다른 일도 많은데 컴퓨터에게까지 신경쓰고 싶지 않다는 일명 '귀차니스트'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것도 같고, 바이러스도 걸린 것 같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줄 알지만 그냥 쓴다. 시간 들여 서비스업체를 찾기 귀찮기 때문이다.

전화나 클릭만 하면 알아서 컴퓨터 치료해주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줄 순 없을까.

인터넷에서 PC의 상태를 점검해 주고 무료로 수리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KT 전남본부의 'PC 원격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5월 이후 8천370명에 달한다. 5월에는 1천963명의 이용자 가 원격 서비스를 이용했고, 6월 2천 315명, 7월 2천220명 등 매달 2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PC의 상태를 점검해 주고 무료로 수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들어 서비스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서 PC 원격서비스는 kt100.com, www.neras.co.kr)나 국번없이 100번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컴퓨터 수리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도 상담원과 연결, 일반인의 PC에서 악성코드를 원격 제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나라 홈페이지 (www.boho.or.kr)에 접속,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와 직접 연결해 해킹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를 없애주고 대응책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파란(pecontrol.paran.com)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PC의 상태를 점검해 주고 무료로 수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들어 서비스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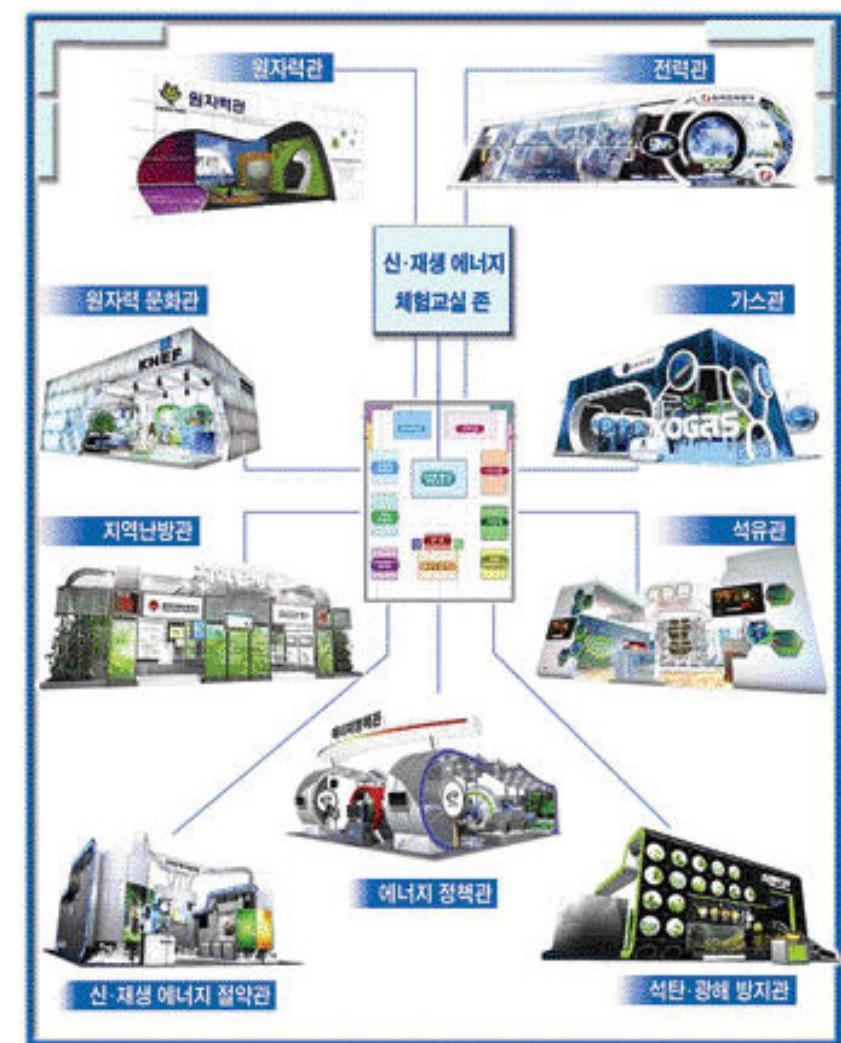
국번없이 100번으로 신청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자료가 저장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을까.

해당 컴퓨터를 원격 PC로 지정만 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자료가 저장된 회사 컴퓨터를 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파란(pecontrol.paran.com)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에너지란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23일부터 김대중센터

아이들에게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3일부터 광주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06 대한민국에너지 체험전'은 아이들이 숙, 태양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석유, 바이오,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에너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해 놓았다.

이번 체험전에서는 석탄, 석유관, 신·재생 에너지 절약관 등 9개 주제별 전시관이 운영되며 숙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

들거나 자전거 페달을 이용해 전지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구리판, 알루미늄판에 손을 올려놓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체험하거나 광합성의 원리를 이용한 태양 전지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광합성은 나뭇잎의 엽록소라는 색소가 빛을 받아 전자를 만들고 이를 전자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엽록소 역할을 하는 열료를 가지고 빛을 쪼이며 전기가 만들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